

나주 '무장애 수영장' 운영...포용형 생활체육 기반 조성

장애인 전용 레인·수중 휠체어 비치 등 인프라 구축 입수~이용 연속적 무장애 동선...25m 7레인 규모

나주시가 장애인이 타인의 도움 없이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립형 무장애 스포츠 환경 조성에 나서며 포용형 생활체육 도시 기반을 확대 하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빛가람 복합문화체육 센터 수영장을 새롭게 단장하고 최근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에 정식으로 재개장한 수영장은 25m 7레인 규모로 조성됐으며, 장애인의 안

전한 이용을 위해 장애인 전용 레인(경사로 포함)을 설치하고 수중 휠체어를 상시 비치했다.

또 탈의실 내 장애인 전용 라카와 샤워실 전용 수전, 수영장 내부 장애인 전용 화장실 등을 갖춰 입수부터 세장까지 이어지는 '연속적 무장애 동선'을 구축했다.

시는 장애인의 건강권과 스포츠권을 단순 재할 개념이 아닌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로 확대하기 위한 정

책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장애 초기 단계부터 중증 장애인까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건강 증진과 2차 질환 예방은 물론 사회적 고립감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나주시는 앞서 지난해 4월 생활밀착형 체육 복지 거점인 '나주 바다리 체육센터'를 개관하며 장애인 생활체육 기반을 확대 해 왔다.

1991년 건립된 노후 체육관을 전면 리모델링한 바다리 체육센터는 정식 규격 경기장 코트와 탁구실, 체력단련실 등을 갖춰 전곡 최초 '어울림 e스포츠 교실'을 운영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통합 체육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빛가람 복합문화체육센터 수영장은 5월 2일부터 유료 운영을 시작했으며 이용 시간과 예약 방법은 나주시청 누리집과 공공

체육시설 예약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효경 나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이번 장애인 전용 수영 공간이 단순한 운동시설을 넘어 신체적·정신적 활력을 되찾는 행복한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스포츠의 주체로 존중받고 장애가 장벽이 되지 않는 건강한 공동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현희 기자 pose007@gwangnam.co.kr

함평, 바다·숲 어우러진 체류형 해양관광 나선다

석두마을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 선정...국비 4억원 지원

함평군은 석두마을이 해양수산부 주관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4억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어촌체험휴양마을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체류형 관광 기반을 확충해 어촌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공모를 통해 지원받은 국비 4억 원을 포함, 총사업비 8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석두어촌체험휴양마을의 숙박·휴양시설 고도화 사업에 나선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모듈러 숙박 시설 설치 △카라반 재단장 △관리동 시설 보수 등이 포함됐다.

군은 사업을 통해 석두어촌체험휴양

마을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성과 체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을 대표하는 어촌관광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노후화된 숙박시설을 개선하고 휴양 인프라를 확충해 가족 단위 관광객과 체험형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손흥주 석두어촌계장은 "이번 공모

선정은 석두어촌체험휴양마을의 발전 가능성과 지역 어촌관광 자원의 경쟁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해양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쾌적한 체류 환경을 조성해 다시 찾고 싶은 어촌마을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함평=최일균 기자 6263739@gwangnam.co.kr

'이틀 만에 완판' 해남 반값여행, 2차 접수

여행비 50~70% 해남사랑상품권으로 돌려받아

'해남군의 여행비 지원 사업인 '땅끝해남 반값여행'이 다시 문을 연다. 1차 접수가 시작 이틀 만에 조기 마감될 만큼 인기를 끈 가운데, 2차 신청은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된다.

20일 군에 따르면, '땅끝해남 반값여행'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지역사랑유기지원사업에 선정돼 추진되는 사업이다.

해남을 찾는 관광객이 지역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소비하면, 사용 금액의 50% 이상을 모바일 해남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해남군 의 지역에 거주하는 관광객이다. 다만 강진·영암·완도·진도 등 해남과 인접한 지자체 거주자는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 여행객은 해남에서 5만원 이상, 2인 이상 팀은 10만원 이상을 소비하면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급 한도는 개인 최대 10만원, 팀 최대 20만원이다.

청년층에게는 혜택이 더 커진다. 청년 신청자의 경우 환급률이 70%까지 적용돼, 청년 개인은 최대 14만원, 2인 이상 팀은 최대 28만원까지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말 그대로



'반값'을 넘어선 '알뜰 여행'인 셈이다.

다만 단순히 해남에서 소비만 한다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참여자는 해남 지역 관광지나 축제 등 2곳 이상을 방문하고, 사진 인증을 거쳐야 한다. 여행도 하고, 인증도 하고, 지역 소비도 살리는 구조다.

2차 접수 대상 여행 기간은 오는 5월 27일부터 6월 29일까지다. 신청은 공식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전체 접수는 여행 일정에 따라 총 3차례로 나눠 운영된다.

앞서 1차 접수에서는 2일 만에 2200여 팀, 4858명이 몰리며 조기 마감됐다. 해남군 입장에서는 '반값여행'이라는 이름값을 톡톡히 증명해낸 셈이다. 반값여행 문의는 해남군문화관광재단 관광사업팀으로 하면 된다.

해남=박기성 기자 city@gjdream.com

장흥 청소년들, '2박3일' 서울 나들이

청소년그루터기재단 후원 '문화 체험 기회 제공'

장흥 청소년들의 서울 나들이가 2박3일 일정으로 펼쳐진다. 대상자의 특성과 학습 수준을 고려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교육 전·후의 변화를 분석하는 등 과학적인 관리체계를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박보서 장흥군 보건소장은 "현장 기반의 교육·연구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치매 예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이향범 기자 inh6699@gwangnam.co.kr

울' 캠프 참가 아동들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경복궁 등 서울의 주요 문화유산을 탐방하고, 서울스카이·롯데월드 등 다양한 체험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교통수단도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 KTX를 타고 서울로 이동하고, 귀가엔 비행을 이용하게 된다.

행사에 앞서 장흥군과 청소년그루터기재단은 26일 참여 아동 및 부모를 대상으로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흥=김효수 기자 city@gjdream.com

보성, 서울 성수동 팝업 프로젝트 진행

MZ세대 겨냥 브랜드 리뉴얼

보성군이 지역내 소기업과 상공인을 발굴해 12월 서울 성수동에서 팝업스토어를 연다. 보성의 로컬 자원을 전국적 인지도를 갖춘 스타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이름하여 '2026 보성 스타기업 성수동 팝업 프로젝트'. 이를 위해 29일까지 참여 희망업체를 공모한다. 공모 결과 2개 업체를 선정. 앞으로 약 7개월간 성수동 주소비층인 MZ세대를 타겟으로 한 신제품 개발(R&D)과 브랜드 리뉴얼을 지원한다.

브랜드·디자인·마케팅 등 각 분야 전문

가 4인으로 구성된 전담팀까지 매칭한다. 군은 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 방식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서면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피칭데이(Pitching Day)' 형식을 도입하겠다는 것. 참가업체 대표자의 철학과 제품 가치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보성군 내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참여 대상이다. 희망업체는 오는 29일까지 보성군청 인구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관련 사업 설명회가 22일 보성군 복합 커뮤니티센터 3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문의는 군 인구정책과 일자리공동체팀(☎061-850-5981)로 하면 된다.

보성=박형석 기자 eco@gjdream.com



장흥군보건소와 전남대학교 간호대학이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장흥군청

장성군-전남대 간호대 치매 관리·대응 '맞손'

AI 인지향상 프로그램 구축 등 다양한 협력도

장성군이 최근 전남대학교 간호대학과 지역사회 치매 예방 및 관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남대 간호대학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장성군보건소·전남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치매 예방교육 프로그램 구축·운영 △치매 관련 연구활동 협력 및 성과 분석 △전문인력 및 자원 교류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반으로 한 인지

향상 프로그램 구축을 위해 협력한다. 대상자의 특성과 학습 수준을 고려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교육 전·후의 변화를 분석하는 등 과학적인 관리체계를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박보서 장성군 보건소장은 "현장 기반의 교육·연구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치매 예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이향범 기자 inh6699@gwangnam.co.kr

화순 어울림센터, 복합 문화공간 선봬

북카페·전시공간·체력단련실 등 생활편의 개선

화순군은 20일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와 건강 증진을 위해 어울림센터 내 복합 문화공간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

용할 수 있는 열린 문화·휴식 공간 조성을 목표로 추진됐다.

특히 북카페와 전시 공간, 체력단련실 등을 조성함으로써 주민 생활편의를 높이고 문화복지 향상에 중점을 뒀다.

어울림센터 1층에는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 관람할 수 있는 전시 공간이 조성됐으며, 2층에 자유롭게 책을 읽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북카페와 체력단련실도 마련됐다.

특히 체력단련실은 시범운영을 거쳐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다양한 운동기구를 배치해 주민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4층 갤러리에는 '세 개의 시선, 하나

의 풍경' 기획전시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오지호, 오승우, 오승운 세 작가의 작품을 통해 지역과 세대가 어우러지는 문화예술 공간을 선보인다.

이명우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앞으로 어린이 체력장과 시설 환경 개선 등을 추진해 어울림센터를 주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지역 대표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